

요 약

2016년 2/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2분기 연속 하락

- 서울의 2/4분기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전(前) 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
 - 2016년 2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표준화지수 기준 94.1로 전 분기보다 0.9p 하락
 - 2016년 상반기는 하락세로 끝났으나 여름휴가, 추석특수 등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
-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은 반등하였으나 미래생활형편은 하락세
 - 2016년 2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0.5p 증가한 90.5이나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97.8로 전 분기보다 1.6p 감소
- 연말정산 시 카드 공제 제도를 폐지하면,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이란 응답이 38.2%
 - ‘비슷할 것이다’란 응답이 52.0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, ‘늘어날 것이다’(9.8%)라는 예상보다 ‘줄어든 것이다’(38.2%)라는 예상이 많아, 카드 사용이 전체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
 - 카드 사용이 줄어들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‘카드 공제가 안 돼서’가 67.0%

간접지표로 알아본 서울시 체감 경기

- 경기불황을 대변하는 지표인 1톤 트럭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
 - 자동차업계에서 경기불황의 지표로 해석하는 1톤 트럭 판매량은 4년 연속 증가 추세
- 최근 2년 새 생명보험 해약 건수는 증가
 - 2016년 4월 기준 해약 건수 120만 건, 해약 금액 약 44조 원으로,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
- 카드론 중심의 카드대출도 증가

소상공인 업황은 지속적 불황

- 전 분기 대비 업황은 정체하거나 소폭 하락
- 서울시 내 구별 상공회 10개소 및 상공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황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하락폭은 다소 줄어들어 정체 또는 소폭 하락세
- 소상공인들은 판매저하와 방문객 감소를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
- 카드 공제 제도 폐지 시 업황에 부정적 영향 예상

서울시 내 지하상가, 업황·입지에 따른 편차 커

- 서울시 내 대규모 지하상가 4개소(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, 중구 을지로지하도상가, 종로구 종각지하도상가, 송파구 가든파이버) 인터뷰
-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은 작년과 유동인구는 비슷하나, 이것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업황은 전년 대비 하락
- 을지로지하도상가는 상가의 집적형태가 아닌 보도개념으로,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이 많지 않으며, 소비자 연령대도 구매력이 크지 않은 고령층이 대부분
- 종각지하도상가는 유동인구 감소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, 온라인 쇼핑몰 강세 등의 이유로 매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
- 가든파이버는 유동인구가 없어 손님 자체가 드문 곳으로, 현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0% 미만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

불안한 내수 속 소상공인 경제난 여전, 품질 갖춘 관광특구로 거듭나야

- 서울 외래관광객 서서히 늘고, 한류 문화에 익숙한 관광객도 증가세
- 외래관광객 증가가 소비활동으로 이어지나, 상인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
- 높아진 관광객 수준에 비해 서울 관광서비스는 여전히 미흡
- 내실 있는 관광활성화 전략으로 서울관광 성장 유도할 필요